中 체조영웅 리닝 공중서 경기장 일주 후 성화 점화

■ 개막식 하이라이트

8일 밤 8시(한국시각 밤 9시) 메인스타디움인 '궈자티위창'(國家體育場)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역대 올림픽과 전혀 차별화된 지상 최대의 쇼가 연출됐다.

7년이 넘는 준비기간, 1천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개막식에는 9만 1천 명의 객석과 2만 명의 무용수 등 총 11만 명 이상이 경기장을 가득 메워 규모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00년간 간직해 온 중국인의 꿈이 거장 장이머우의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도쿄(1964년), 서울(1988년)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올림픽이 열린다는 점에서 동양적인 섬세함과 화려함으로 구성된 내용 또한 과거 서구적인 가치와는 대조를 이뤘다.

13억 중국인이 100년을 기다렸던 지구촌 최대 스포츠 제전의 불꽃을 지핀 개막식 하이라이트의 주인공은 왕년의 남자체조 스타 리닝(李寧·45)이었다.

개막식은 지상 최대의 잔치답게 규모 또한 엄청났다. 임시좌석 1만 1천개를 포함 9만1천 관중석에 25만8천㎡ 크기의 그라운드에서 펼쳐진 행사에 소비된 전략만 모두 1만500kw. 경기장 한가운데 설치된 147m 길이의 전광판에는 4만 4천개의 LED램프가 박혔고 경기장 곳곳을 잇는 전선 길이만 해도 총연장 160km에 달했다.

주경기장 공중에는 10개의 강철 로프가 설치돼 공연에 동원된 인원과 시설물을 매달았다.

장이머우 총감독 연출
5천년 중국 화려한 재연
1천억짜리 지상 최대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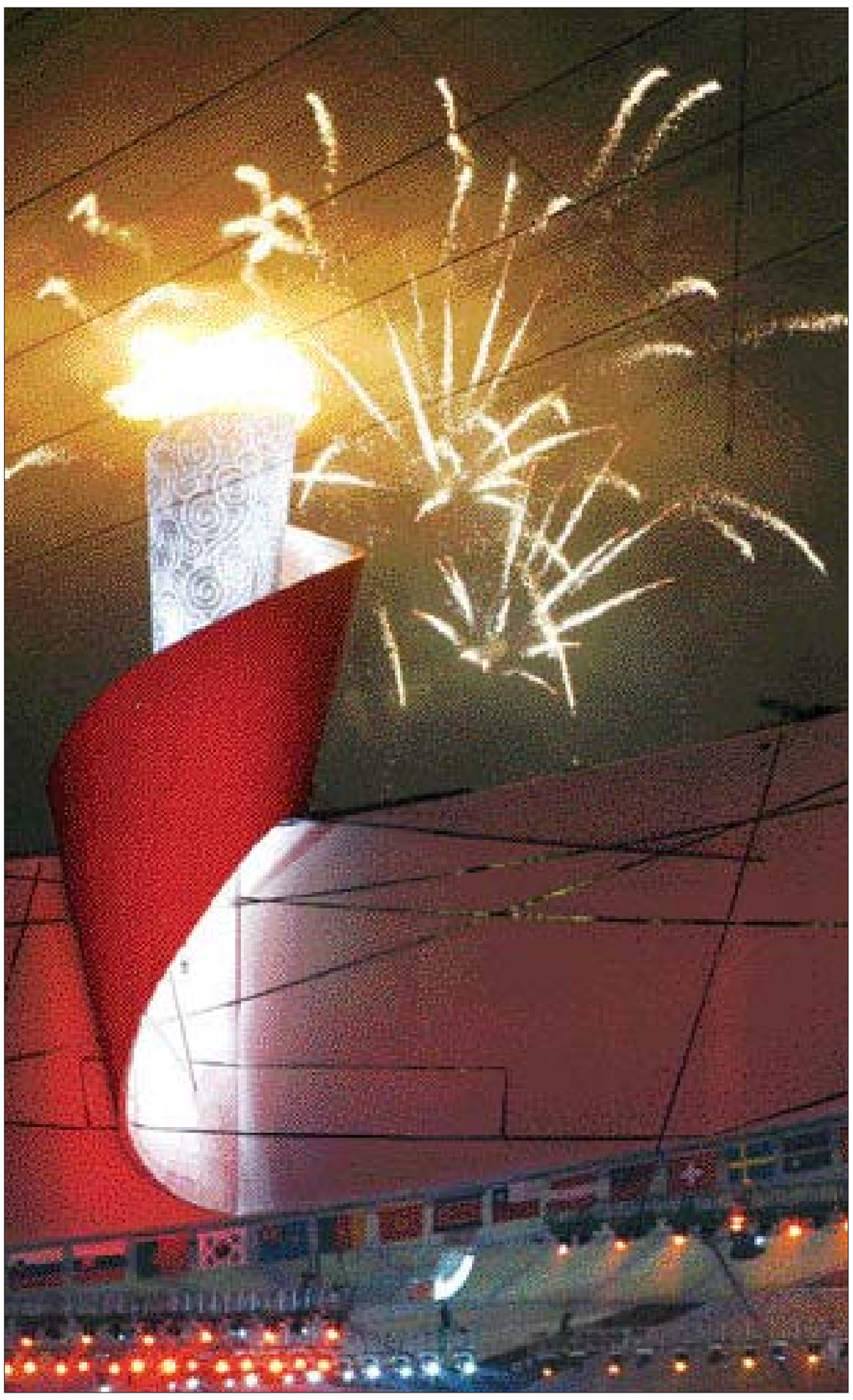
총 40t까지 견딜 수 있는 로프들을 모두 이으면 55km에 이르며, 로프를 붙잡기 위해 천장에는 9개의 트럭이 올라갔다. 그라운드 한가운데 놓였던 대형 종이 두루마리는 길이 20m, 폭 11m에 800kg의 무게를 자랑했고 공연 막판을 장식한 대형 지구모형도 16t에 달했다.

장이머우의 연출로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공식 개막 공연은 이전 대회와 가장 차별성을 느낄만한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5천 년 황허(黃河) 문명의 집약체로 불리는 개막 공연에는 중국의 찬란한 과거와 번성한 현재, 창창한 미래를 모두 담았다. '문자'(文子)라는 제목의 공연을 통해 제지, 화약, 인쇄술 등을 발명한 중국 문명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 무예 쿵푸쇼가 이어졌다.

상서로운 동물로 중국을 상징하는 용은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비상하고 불꽃과 폭죽은 베이징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개막 공연은 중국의 탁월한 문명을 알림과 동시에 특유의 신비감과 몽환적인 분위기를 강조해 스탠드를 가득 메운 관중을 매료시켰다.

다양한 민족 문화와 화합하는 중화문명은 우주인과도 교감을 이루면서 우주 속의 중국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 개막공연에 우주 주제를 포함한 것은 바깥 세상에 '인문'과 '전통'으로 각인된 중국이 앞으로는 과학과 미래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연합뉴스



세계인의 가슴을 뛰게 할 2008 베이징 올림픽이 8일 밤(현지시각) 주경기장인 궈자티위창에서 성대한 개막식과 함께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가운데 성화 최종주자인 중국의 체조영웅 리닝이 점화한 성화가 타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후진타오 만나 북핵 등 협력 요청

이명박대통령 올림픽 정상외교 시동

지난 6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3번째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친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1주일 동안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알제리, 호주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숨가쁜 '외교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베이징 올림픽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자원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 및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경제개발,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의 분야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등 여타 분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막식을 관람한 후 9일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정상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열리는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2차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5월 1차회담의 성과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체화 방안과 후 주석의 8월 말 답방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주로 자원,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과 함께 우리 기업의 진출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11일 청와대에서 방한하는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LNG(액화천연가스) 등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李대통령 - 김영남 '어색한 악수'만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8일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짧은 만남'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조우는 지난달초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남북간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그 자체로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후진타오(胡錦濤) 중국주석 주최로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 오찬에서 30여명의 각국 정상 및 고위 인사들이 함께 앉은 대형 테이블에서 김 위원장과 첫 대면을 했다.

오찬에 앞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오찬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행사장을 오가며 각국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근처에 서 있던 김 위원장을 발견하고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이 대통령은 웃는 얼굴이었으나 간단히 악수로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등을 돌려 반대편으로 향했으며, 김 위원장도 자리를 피해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연합뉴스